

해피밀 시즌 3-10을 발간하며, 선물로 받은 영원한 봄을 만끽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겨울옷은 정리하고 가벼운 봄옷을 꺼내 입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옷차림은 어떠해야 할까요?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가 입어야 할 신앙의 옷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신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에서 지키시고, 핍박 가운데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부활주일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어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이루신 날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봄 (Blood Of Miracle)"이라는 주제로 묵상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주제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적인 '봄'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기억되고 묵상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원한 봄을 맞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기억하시고, 해피밀을 통해 날마다 이 옷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절대로 벗지 말고, 매일 그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3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 찢을 때가 있고 꿰매는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길흉화복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오랜 격언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들이닥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애쓰도록 합니다. 때로는 지나간 세월을 묵상하여 교훈을 찾게 합니다. 혹은 다가올 시간을 위해 당장에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통제되지 못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계속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제자가 아니라 철저히 통제받는 존재임을 밝혀줍니다. 다만 본문의 목적은 우리를 불가지론자로 만들려는 것도, 두려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기꺼이 순응하는 존재로, **시간에 매여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무척 역설적인 존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 없이 역설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주님은 전능하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악하나 그분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는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통제받으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역설적인 존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통제 받으나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9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선물 같은 하루**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삶을 끔찍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매일을 보살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루하루는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역시 **"하나님의 선물(13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선물은 우리를 다음과 같이 살아가게 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선을 행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지나친 수고에 비해 매일 먹고 마실 것이 없어 괴로워하는 사람, 선보다는 악을 더 많이 행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일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구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는 저 하늘에서 매일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선을 행하는 극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선물 같은 하루가 아니라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문제조차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Q.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두려움과 슬픔을 압도하도록 말입니다.

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언뜻 인생 자체를 가리켜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헛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즉 포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속 화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외란, 그 대상에게 압도된 상태를 전제합니다. 또한 나를 압도한 대상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를 두려워하며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경외 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매일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옛 자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를 자극하며 매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마귀보다 크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깨닫는다면 주님을 경외함에 더욱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과 평안**입니다. 구약 속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형통하였으며 장수했습니다. 신약의 선배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천국에서 얻게 될 큰 상급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과 평안을 얻은 존재입니다. 혹시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매일 찾아오는 허무함 때문인가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 앞에 연약한 자신 때문인가요? 본문처럼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사건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역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봅시다.

Q.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나오기를 결단해봅시다.

16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17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8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을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2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1997년에 상영된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귀도'는 '도라'라는 여인에게 한 눈에 반하여 그녀와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아들 '조수아'도 얻습니다. 그러나 조수아의 5번째 생일날, 독일군에 의해 끌려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일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귀도는 수용소의 모든 참혹함으로부터 아들 조수아를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를 위해 수용소 생활을 게임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제목을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지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귀도는 독일군에게 처형당하고 조수아는 아버지를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목과 달리 내용은 속이 상하는 것뿐입니다. 무척 모순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척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이 많습니다. 불의한 생각과 말이 넘쳐납니다. 따뜻함과 진실함, 정의는 점점 색을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등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자는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 종국에는 짐승과 같이 흠으로 돌아가듯, 모든 의인과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심판을 고대해야 합니다. 심판은 지금이 아니라 그날에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은 덧없지 않습니다. 인생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란하게 빛납니다.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앞서 귀도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결국 자신이 사랑한 것들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성공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냅시다. **더러운 죄에 물들지 말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물들어갑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를 가장 분노하게 하거나, 나의 믿음을 흔드는 일은 무엇인가요?

Q. 주님께 물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제목을 적어봅시다.

1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2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진정한 위로자

화자는 세상의 모든 학대에 주목합니다. 학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보다 힘이 없는 자에게 수많은 폭력을 행합니다. 원어적 의미와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백성들을 속이고 때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와 생명도 마음껏 갈취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관조차 뇌물을 받고 악한 판결을 내렸으니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무자비한 횡포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홀로 달래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찌나 끔찍하던지 화자는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낫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더욱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늘 끔찍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선한 열매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죄악과 폭력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삶은 늘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고통 속에서 위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화자는 단순히 악한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눈물 흘리는 자들의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위로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여러 왕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하던 모든 학대, 악인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까지 대신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셨을지 모릅니다. 물론 누구도 주님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하고 핍박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게 해도, 여러분을 자기 목숨보다 더욱 아끼는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위로를 전하십니다. 부디 그분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최근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었나요?

Q.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나, 가정, 공동체, 지역 사회, 나라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1. 전도서 4장 1-3절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 청년용)

- 1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라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2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2. 아이들과 함께 아래의 질문들을 나눠봅시다.

- 1) 최근에 학교, 직장에서 "이건 정말 불공평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니?
- 2) 하나님은 세상의 불공평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것 같니? (그냥 두시는 걸까? 아니면 고치시는 걸까?)
- 3)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까?
- 4)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학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3.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어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대표자의 대표기도로 마무리)

4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5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6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두 손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인 사촌이 땅을 사면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보면서 함께 축하해줘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비교하며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상대방을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4절 말씀을 보면 비록 내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 낸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허무하게도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인정과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진정한 행복과 축하를 얻기가 참 힘듭니다. 오히려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허무주의 빠지게 되어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매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곧 미련하고 바보스럽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무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시기 질투는 안 받을 수 있을지언정 생존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면 두 손이 가득한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 손을 가지고 내 수고와 열심을 통해 스스로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반면 두 손 다 놓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는, 두 손 다 나 자신을 위하여 가득 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 손이 한 손은 나를 위해서, 또 나머지 한 손은 남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손이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손을 모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Q. 한 손은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 나라를 세워갑시다.

7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8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혹시 그들이 넘어서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해피 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혼자가 아닌 함께**

오늘 본문에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7-8절).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열심을 다해 개인의 탐욕과 유익만 좇으며 스스로를 위해 축적하는 것이 불행한 노고라고 말씀합니다. 불행한 노고는 원어로 보면 악한 일입니다. 즉 성경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헛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공동체와 희생정신 그리고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선 두 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18:20).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가족 공동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인디언 속담에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함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9-12절 말씀에선 함께 함에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이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거나 일으켜 세워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경우 나의 쓰러짐을 보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사람이 세 사람이면 쉽게 무너지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13절).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해피 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악함'으로 정의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Q.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이기에 함께 함을 추구하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13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15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변하지 않는 진리**

오늘 본문에선 명성과 영광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의 지혜와 명성과 영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충고를 싫어하는 늙은 왕도, 인기를 얻은 지혜로운 왕도 마지막 운명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경륜이 있을지라도 그를 잇는 새로운 왕 때문에 결국 그는 잊히게 될 것이며 또한, 온갖 인기를 차지한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후대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설 새 없이 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모든 것에는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온전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는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만족감을 찾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선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상황에 따라 변질하고 썩어가는 것이 아닌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급변합니다. 한 사람의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순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며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변하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즉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내 자신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Q. 지금 내 삶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 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7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4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갇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갇으라 5 서원하고 갇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7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1절). 즉, 예배를 드릴 때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바로 가까이하며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소리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순종입니다.

반대로 우매한 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임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삶의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주일날 한 번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잠깐 시간 보내다 오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 예배의 헛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신다고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반응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이번 주일/주중 예배를 드렸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었는지 묵상해보시길 바랍니다.

Q. 과거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 들어간 나의 열심과 시간을 생각해보십시오. 다시는 그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온 맘과 정성을 다해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8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9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다**

8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패한 권력자를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며 정의를 왜곡시키는 일은 전국적으로 흔한 현상입니다. 더 나아가 권력자들은 더 높은 권력자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또 그 위로도 이와 같은 부패와 착취의 악순환은 이어집니다.

땅의 모든 소산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듯이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9절). 즉 경제정의는 일반 백성뿐 아니라 왕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상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연한 불법과 불의를 날마다 봅니다. 배부른 자들은 배부르게 위해 더욱 악을 행하고, 이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더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장 높으신 곳에서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탐욕의 세상에,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불법과 비리가 가득한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거룩한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후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회복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삶을 기뻐한다면, 그 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수고하며 애쓰는 충성된 종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으십니까?

Q.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칭찬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3월 22일(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전도서 5장>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전도서 5장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요.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17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소망**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연민하고, 갈망하며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갈구하는 감정이며,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캐치티니핑 중에서도 단연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사랑의 '하츠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이것은 사람의 가장 강렬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렬한 본능이기에 다른 본능을 늘 이깁니다. 사랑하면 식욕을 잊기도 하고, 사랑하면 수면욕도 이깁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는 헛된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은과 소득을 사랑하는 사람, 부유함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헛된 것을 사랑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 금, 부유함은 14-16절 말씀처럼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며, 죽으면 끝나 버리는 영원하지 못한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사랑함으로 식욕을 이기고, 수면욕도 이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의무마저 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까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정열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소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 아는 자,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소망되는 그 분만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수많은 욕구를 이겨냅니다. 영원하신 그분을 사랑함으로 불행(16절) 이 아닌 행복을 누립니다. 근심과 분노가 없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하여 모든 욕구를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Q. 내 삶이 가치우선 순위를 적어봅시다.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두 가지의 지혜로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는 제법 큰 난제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본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을 먹고 마시며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기쁜 것을 따라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날이 길지 못함을 인지하지 못하며, 쾌감과 당장의 즐거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 본문을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들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평생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공의가 숨 쉬고 있고, 수고와 고생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낙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과 같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전도서 3 날 9절 말씀에 허락하신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관점 모두 우리의 심령에 유익한 신학으로 주어집니다.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만 좇으며 인생의 짧음을 염두하지 않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과 누릴 수 있는 재물과 시간 및 모든 재원이 하나님으로 오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공경의 고백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공경의 고백이 십일조와 같은 헌금의 헌신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공급하심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능히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어떤가요?

Q. 1분의 식기도를 실천하며, 우리에게 삶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1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2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4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5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6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7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8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9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신속하게 답을 찾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의 많은 재물이 없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짊어진 다양한 멍에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제 심령에 있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세상의 어떤 만족보다 그분이 주는 만족은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에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많은 재물과 부를 소유하였지만, 그 부유함을 자신이 누리지 못합니다(1-2절). 그는 장수하고 많은 자녀가 있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생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3-6절). 그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람의 '식욕'은 그 어떤 것으로 다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식욕'으로 번역된 단어는 식욕보다도 사람의 전인격(심령, 육체)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재물을 모았고, 자녀도 많으며, 심지어 장수하지만 그러한 것들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계속해서 배고프며 갈급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공허함을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 외에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이것을 채우고자 수많은 방법과 기술과 기구로 고안해 내지만,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웁니다. 영혼에 완전한 만족을 줍니다.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공허한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Q. 갈급함을 가지고 그 분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 심령에 온전한 만족을 누립시다.

11 지혜는 유산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13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 19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21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보다 ~가 낫다

전도서 7장 말씀은 '~보다 ~가 낫다'의 형태를 취한 잠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를 통해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가늠해 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교는 어떤 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7장 말씀에는 매우 명쾌하고 무엇이 무엇보다 좋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치평가들을 보며 우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사뭇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고 합니다. 꾸지람을 듣는 것이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일을 끝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제법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고와는 다 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웃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며, 장례식보다 결혼식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는 너무나도 세상 중심적이며, 이생의 자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말하는 잘됨과는 거리가 먼 가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난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기에 그리스도를 부여잡으며, 주리고 목마름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박해받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욱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욱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전도서 7장을 읽으며, 나의 가치평가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Q. 내 안에 애통, 가난, 목마름, 박해가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11 지혜는 유산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13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5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생각하다**

인생의 불확실성은 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명치 못하고 헤아리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4절 말 끝에 나오는 것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그 어떤 고난이 느껴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곤고한 날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파도 속에서 쉽게 흔들리며, 곤고함을 느낍니다. 그러할 때에는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되돌아보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곤고한 날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생각과 사색을 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상매체들은 깊은 사고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바쁜 일상엔 철학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곤고한 날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인터넷 세계로 뛰어들어 생각하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 성한 생각 멈춤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곤고함과 즐거움을 허락하지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함 속에서 깊어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이해하지 못할 순간순간마다 깊이 생각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도자도 그렇게 생각하여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며 또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낙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이야기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마땅히 이해함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 신뢰함에 이르러야 합니다(18절).

하나님께서서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역사의 물결 속에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죄의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굽이치는 인생 속에 친히 함께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최근 나의 삶에 다가온 곤고한 세월 속에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Q. 고난 중에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깨달은 신앙의 이야기가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2025년 3월 22일(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전도서 6장>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잠언 6장,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잠언 6장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BINGO! 빙고타임! 잠언 6장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내 마음의 한 자리

1. 4월 9일 해피밀을 읽어주세요.
2. 최근에 공허한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3.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자리에서 충만함 누리길 결단해보세요.
4. 부모님께서 기도문을 준비하셔서 가정예배 후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외면당함을 입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상대방을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할 때 설렘, 기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준비한 수고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선물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를 위해 '다시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노라'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따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에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모든 만물 그 어떤 것도 지은 바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칭송과 존경,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를 대하는 자들은 모두 감사와 환희 고백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멀리 계신 분께서 우리 가까이에 오심을 두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세상은 냉담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백성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일 가는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마태복음 26장 69-75절). 내가 만약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심히 마음이 상하여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선물들을 폐기 처분 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의 뜻대로 부르신 길을 뚜벅뚜벅 걸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지꺼리를 해도 그는 부르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외면 당하는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외면을 주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외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사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지언정 주님께는 외면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진짜를 알아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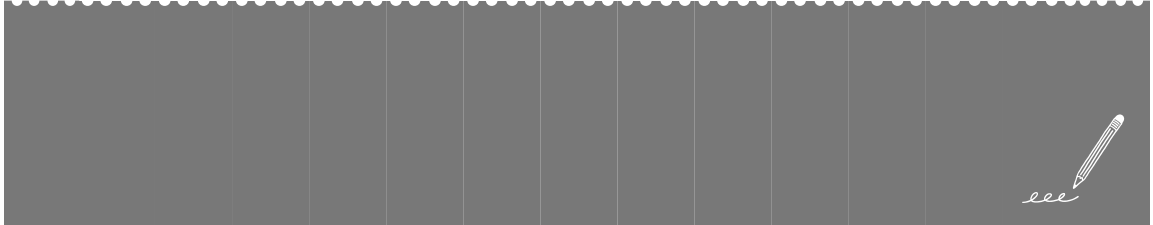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선물을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봐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Q.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순종을 입다**

'관성'이란 외력이 없을 경우 물체는 항상 등속직선운동 상태, 즉 일직선을 따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불을 두드리는 것,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앞으로 쏠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성의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흔적대로 변함없이 살기를 만족합니다.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살기를 요청하는 '순종'이 우리에게겐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 후에 십자가에 나아가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앞에서 다시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내용은 대법하고 용기가 가득 찬 것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분의 기도제목은 귀감이 되어지고 본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제목은 연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과연 그가 십자가의 길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강력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조차도 십자가(하나님과과의 단절, 저주)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 위하여 결국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자신의 뜻을 절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한대로 죄를 따라 살기를 즐겨워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순종을 입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얻게 된 순종의 은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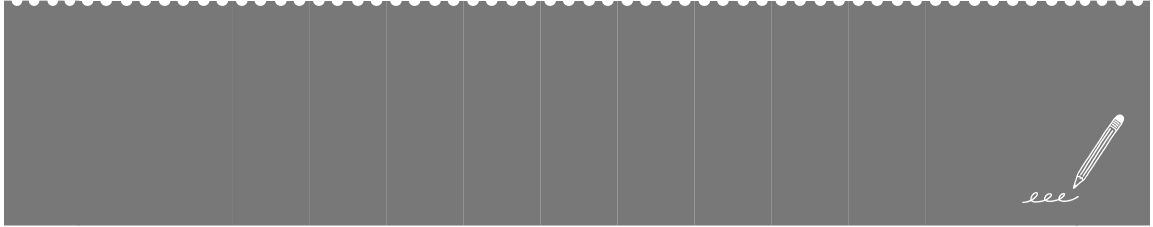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말씀 때문에 내 감정을 뒤로 한 적이 있으신가요?

Q. 성경 속에서 담겨 있는 예수님의 순종의 흔적들을 찾아보세요.

16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조롱을 입다**

한국사회는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표정을 지을지, 어떤 학벌과 스펙을 지니고 있을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지'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향한 다른 이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평가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를 받는 자들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집중하고 그분께 기쁜 인생이 되기 위해 많은 고민들과 분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일어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앞에서 엄숙하고 진지함을 보여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길은 오직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일부로 자색 옷을 입혀 그가 나약한 왕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연출합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희롱합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영광스럽고 숭고하고,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길이지만 동시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곳입니다. 우리 또한 이 길 가운데 초대 받았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위해 감당해야 할 헌신도 있습니다. 이 헌신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시어 그 길을 감당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조롱을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서는 평생 받은 조롱을 한 순간에 녹여줄 칭찬과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조롱 입기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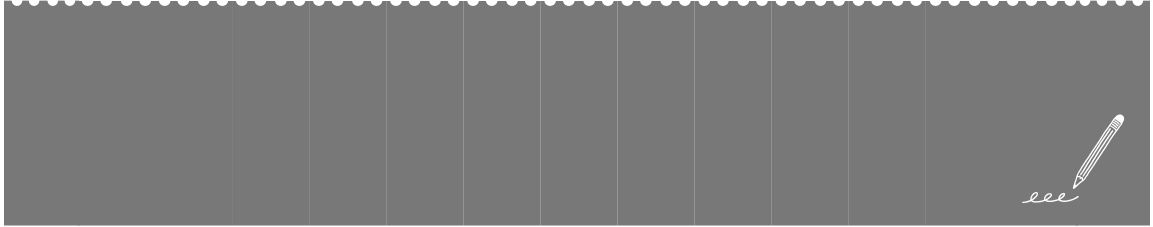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복음으로 인하여 조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Q.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실수나 게으름, 연약함으로 조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침묵을 입다**

이전의 세대의 조직 문화에서 '침묵'은 미덕이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고, 묵묵히 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나의 속은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겉으로 웃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침묵'보다는 고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용기 있다고 칭찬을 보냅니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은 매우 답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울하고 부당한 일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 앞에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나도 지켜행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함을 완벽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고함을 주장하여 자신이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기록하기로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메시야로 오셨습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고난과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일반적인 침묵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침묵은 '나'가 기본전제입니다. 나의 커리어를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등이 침묵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하나님'이 전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당함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부당함 가운데 나의 감정과 이해득실이 앞서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서 침묵하기를 도전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침묵함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고난을 깨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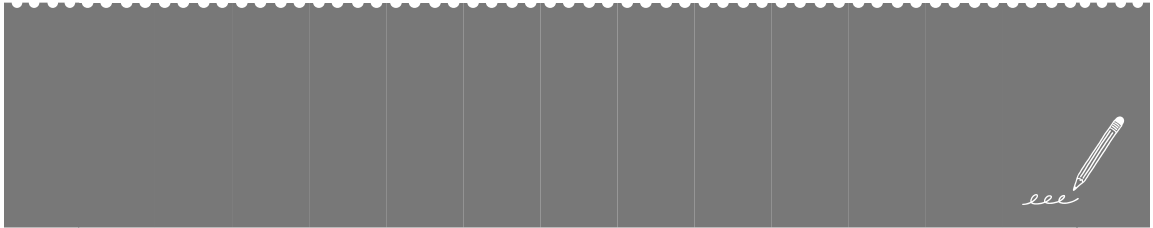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복음으로 인하여 침묵을 자처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Q.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5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싯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죽음의 입다

원래 우리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우리는 모든 죽음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죽음의 원인인 죄를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스토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 죄를 딛고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달리 정결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죽음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평생 한 곳을 바라본 곳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마시주셔야만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회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입으신 것은 다른 말로 부활을 입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옷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더욱 진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Q.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9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2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13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14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히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